

프랑스 대중문학의 역사

송 덕 호*

차 례

I. 들어가며

II. 프랑스의 대중문학

1. 개념 및 용어의 변천
2. 대중문학의 전사(前史)
3. 제1시기: 낭만적·영웅적 시기 - 발생기(1830-1870)
4. 제2시기: 부르주아의 시대 - 성숙기(1870-1900)
5. 제3시기: 신영웅 시기 - 전환기(1900년 이후)

III. 나가며

I. 들어가며

이른바 '대중문학'이라 불리는 범주 안에 포함되는 작가나 작품에 대한 학문적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저급문학', '하위문학', '열등문학', '주변문학' 등 대중문학을 겨냥한 여러 별칭들이 그런 사실을 잘 말해 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대중문학이 지니고 있는 상업성이나 통속성에 있다. 문학이 지녀야 하는 예술성과 미학적 가치를 도외시하고 독자 대중의 취향에만 영합한 함량 미달의 문학이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대중문학은 20

* 전북대

세기 중·후반까지 —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도 — 문학사에서 외면당해 왔고, 학교 교육의 프로그램이나 대학의 학위논문 대상으로서도 관심을 끌 수 없었다. 그러나 소수 엘리트 계층에 의해 찬양되어 온, 또한 자랑스런 문화 유산으로 인식하는 데 거의 이의가 없는 이른바 고전작품들보다 생산된 수가 월등히 많으며¹⁾ 폭넓은 독자 대중 속에 깊이 침투한 대중문학을 무관심 속에 영원히 은폐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서구에서는 20세기 중반부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대중문학에 대한 논의가 점차로 활발해지고 대학에서 대중문학에 관한 학위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개방적 관점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요컨대 대중의 비중과 역할이 갈수록 커져 가는 현대사회에서 대중성과 문학성은 더 이상 대립 개념이 될 수 없으며, 대중문학과 순수문학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모호하고 불필요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문학의 사회적 위상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문학연구의 경향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문학작품도 영화를 비롯한 영상매체와 더불어 총체적인 문화현상의 시각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담론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할 시점에 있다.

대중문학의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또는 대중을 중심으로 독서문화의 변천사를 논의하자면, 그 본령은 소설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 '대중'이란 개념은 근대적 교육 및 산업 자본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그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한 문학장르가 곧 소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대 이후의 문학 독자는 대부분 소설 독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봉건제가 와해되고 문맹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소설은 대중적 매체인 신문이나 잡지와 더불어 대중문화의 대표적 문학장르가 되었다. 소설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속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은 꿈과 마법이 깃든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환상을 만들어내며 대리만족을 경험한다. 문학의 여러 장르들 가운데 그러한 욕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소설은 그런 까닭에 본질적으로

1)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늘날까지 생산된 문학작품 가운데 이른바 정전(正典, canon)이나 고전(古典, classic)의 범주에 드는 작품은 10% 미만이며, 따라서 90% 이상이 대중문학 작품이다.

대중적일 수밖에 없다.²⁾ 또한 근대적 의미의 소설이란 부르주아 계급, 즉 신흥 시민 계급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이야기체 문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소설은 높은 상품가치를 지닌 소비문학의 성격을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중문학이 형성되고 발전한 19세기 이후의 역사는 대중소설의 역사이다.

이 글에서 간략하게 개관하는 프랑스 대중문학의 역사는 그 동안 프랑스 문학사에서 대중문학이라는 이유로 전혀 언급되지 않았거나 주류 문학의 주변에서 부수적인 장식품으로 전락해 있던 작가와 작품들을 시대순으로 정리하고 체계를 세움으로써 그 실체를 드러내고 객관화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눈과 손에 늘 가까이 닿아 있는 또 하나의 문화적 실체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망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 희망하기 때문이다.

II. 프랑스의 대중문학

1. 개념 및 용어의 변천

〈대중문학 Popular Literature(영), Littérature populaire(프)〉이라는 표현은 19세기 이후에 생겨난 말이다. 서양에서는 18세기까지만 해도 ‘문학’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교양인과 문인이 지니고 있는 지식의 총체를 가리키는 ‘문화’의 의미가 강했다. 다시 말하면 문학이란 식지층만의 고급문화였던 셈이다. ‘대중’은 과거 대부분의 시대에 원래 하층민을 지칭했던 말로서 문자를 알지 못하고, 따라서 문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지식문화에 참여하지 못했던 계층이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선각자는 있었다. 16세기에 프랑스의 몽테뉴 Montaigne는 ‘대중시’라는 개념을 언급하면서 그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2) 한국의 ‘소설(小說)’이라는 명칭이나, 그에 해당하는 프랑스어의 ‘roman’ (본래 지식계급의 라틴어에 대응하는 말로서, 〈대중이 사용하는 속어〉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후에 이것이 발전하여 유럽의 여러 언어가 되었음)만을 놓고 보아도 대중적 장르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순박한 농민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며, 정직한 사람들은 철학자들이다. (...) 순전히 자연발생적인 대중시는 순박성과 우아함을 지니고 있으며, 바로 그 점에서 기법에 의한 완벽한 시의 주된 아름다움에 비견된다. 가스코뉴 지방의 목가 또는 학문이나 문자를 조금도 모르는 국민들 사이에 전해오는 노래들에서 그런 것이 보인다. (『수상록』, 제1권 제54장)

몽테뉴가 말한 '대중시'는 오늘날 우리가 '구비문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하며, 이것이 대중문학 최초의 개념이다. 그 후 18세기 말엽에 독일의 헤르더 Herder가 발표한 『민요 Volkslieder』의 영향을 거쳐 19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대중시가 단순히 '대중들의 노래'라는 의미보다는 전통적이며 민족적인 성격으로 노래되는 운문 희곡을 지칭하는 뜻으로 변한다. 몽테뉴에 비하여 '대중'이라는 낱말이 특별하게 채색되기 시작한 것이다. '대중문학'이라는 표현은 19세기에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 당시의 '문학'은 특정한 시대나 나라의 문학적 생산의 총체를 가리키는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으며, 그와 동시에 '대중'의 2차적 의미, 곧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중요성을 띠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서민이 국가 안에서 하나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이 생겨났음을 의미한다. 그때부터 '대중'과 '문학'의 결합이 점차로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그 두 단어의 결합이 용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 결합은 가장 미묘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대중문학의 두 번째 개념은 출판과 유통의 형태에서 비롯된다. 저렴한 가격에, 휴대하기 간편한 포켓북 시리즈같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기획한 책들을 말한다. 예컨대 19세기의 프랑스에서는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의 이야기책을 크기가 작은 여러 권의 분책(分冊, fascicule)으로 만들어, 붓집장수들이 시골 구석구석을 돌며 깊은 산골까지 팔고 다녔는데, 이것을 '행상문학' 혹은 '가택방문판매문학' littérature de colportage이라고 한다. 이것은 인쇄술이 발달한 19세기 후반에 들어서자 기업화되어 역대합실이나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형태로 변모한다.

대중문학의 세 번째 개념은 판매부수, 곧 대중의 호응도와 관련된다. 가령 19세기에 『파리의 신비』로 전 유럽을 풍미하며 ‘대중소설’의 대표격으로 군림했던 외젠 쉬 Eugène Sue를 비롯하여 『삼총사』, 『몬테크리스토 백작』 등의 흥미진진한 소설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알렉상드르 뒤마 Alexandre Dumas 등은 사회문제를 소설화하여 엄청난 대중의 인기를 누렸는데, 그러한 인기는 그들의 소설 속에 제시된 사회제도를 본떠 개혁을 시도하려는 움직임까지 이어졌다. 그때까지 ‘대중시’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던 ‘대중문학’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작품에 힘입어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대중소설’의 동의어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대중문학의 네 번째 개념은 현대의 ‘대량소비문학’이다. 그 주요한 장르는 추리소설, 과학소설, 첩보소설, 로맨스소설, 에로소설, 만화 등이 있으며, 논자에 따라서는 여기에 멜로드라마나 대중가요(가사)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 경우 대중은 위의 장르들을 소비하는 주체로 파악된다. 소비 주체로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가자 서양에서는 1960년경 이후부터 이 문학에 경멸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대중시’, ‘대중문학’, ‘대중소설’ 등의 개념을 통칭하여 *paralittérature*³⁾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대중문학’, ‘대중소설’이라는 명칭에는 과거나 지금이나 많은 모순과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 용어와 범주에 대한 의문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많은 부분이 재검토 요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것처럼 많은 논란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학’이라는 명칭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것은, 그러한 명칭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학이 엄존하고 있는 데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연구 추세

3) 접두어 *para-*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막아내다, 방지하다, 차단하다>라는 뜻으로서 *parasol*, *parachute* 등의 단어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옆에, ~주위에>의 뜻으로, *paralittérature*는 후자의 의미이다. 그러므로 우리말로는 ‘주변문학’, ‘의사(擬似)문학’, ‘준(準)문학’, ‘2차문학’ 등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으나, 주의할 것은 *paralittérature*가 제도권의 중심에 있는 고전문학의 상대 개념으로서 *littérature marginale*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경멸적 의미를 배제하자는 의도가 들어 있다는 점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를 우리말로 옮긴다 해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으므로 일단 ‘패러문학’이라 명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로 보면 '대중문학'은 '대중문화'의 한 현상으로서 영화 등 영상매체와 가요 등을 포괄하는 '대중서사'의 개념으로 파악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 대중문학의 전사(前史)

대중문학의 범주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대중적이 아닌 문학과 접경지대는 어디인가? 우리가 늘 '지금·여기'의 근거와 본보기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은 진정 대중문학의 범주에 들지 않는 것인가? 가령 중세의 『여우이야기 *Roman de Renart*』나 파블리오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도 라블레의 『가르강튀아』와 『팡타그뤼엘』, 라퐁텐의 『우화집』, 몰리에르의 희곡들, 볼테르의 『콩트집』, 위고의 『레미제라블』 등이 대중문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이밖에도 여러 의문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출판형태나 주된 독서층을 기준으로 하여 '대중문학'으로 분류하는 데 이의가 없는 작가와 작품들을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대중문학 또는 대중소설은 근대문학의 발전과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18세기 영국 소설이 대중소설의 원형이다. 18세기의 영국 소설은 새로운 구매자들, 즉 도시 부르주아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문화 산업의 산물로서 탄생하였다. 그 대부분은 여성 독자들이었다. 새뮤얼 리차드슨 Samuel Richardson, 다니엘 디포우 Daniel Defoe, 조나단 스위프트 Jonathan Swift, 헨리 필딩 Henry Fielding의 소설들이 큰 호응을 얻었다. 새로운 독자들은 귀족적이며 종교적인 가치들을 소설로 대체하고자 하였으며, 신앙 대신 감정의 활성화, 가능한 현실에 대한 상상력의 활성화를 소설로부터 얻고자 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편지 형식의 연애소설로서 소설 기법을 개혁한 리차드슨의 『패밀리 Pamela』(1740)와 『클라리서 할로우 *Clarissa Harlowe*』(1747-1748)는 18세기에 아베 프레보 L'abbé Prévost에 의해 프랑스에 번역되어 대단한 인기를 얻음으로써 대중문학의 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주었다. 편지 형식의 소설인 루소 J.-J. Rousseau의 『신 엘로이즈 *La Nouvelle Eloïse*』(1761)와 라클로 Choderlos de Laclos의 『위험한 관계 *Les Liaisons Dangereuses*』(1782)는 당시 전 유럽에 유행이었던 서간체적 기교의 대표적 산물이다. 유럽의 18세기는 '계몽의 시대'이자 '편지의 세기'였다. 편지 쓰기의 힘이 유럽의 근대소설

을 형성하는 데 하나의 동력원이 된 것이다. 피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도 그러한 세대의 자연스러운 반영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초·중반까지도 일반 서민들이 책을 접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책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인데,⁴⁾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대중은 독서와 문화를 갈망하게 되었고, 이 폭발적인 갈망을 만족시켜준 것이 바로 대중소설이었다. 신문소설이 나오기 이전의 대중소설은 도서대여점(Cabinet de lecture)을 통해 접할 수 있었다. 당시 대출료는 한달에 3-4프랑 정도, 책 한 권의 대출료는 판형에 따라 10-20상팀이었다.⁵⁾ 파리의 도서대여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의 독서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도서대여점의 매출을 올려준 스타 작가는 피고르브뤽 Pigault-Lebrun⁶⁾과 폴 드 코크 Paul de Kock, 빅토르 뒤캉주 Victor Ducange 등이 있고, 앤 래드클리프 Ann Radcliffe와 루이스 Lewis, 매튜린 Maturin, 뒤크레뒤미니 Ducray-Duminil 등은 범죄소설이나 공포소설로 인기를 끌었으며, 코탱 부인 Mme Cottin은 도덕적이며 교육적인 작품 『마틸드 Mathilde』, 『클레르 달브 Claire d'Albe』 등으로 여성들의 심금을 울렸다.

도서대여점의 비약적인 발전은 대중소설의 본격적인 개화를 가져왔다. 신문에 소설이 연재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더욱 싼값으로 소설을 읽을 수 있게 되지만, 도서대여점은 19세기 말까지 꾸준하게 호황을 누렸다.

3. 제1시기: 낭만적·영웅적 시기 - 발생기(1830-1870)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과 더불어 국가공동체 안에서 대중의 지위가 점차

4) 1838년 당시 노동자의 평균 일당이 3프랑이었던 데 비해 책 한 권의 가격은 7프랑 50상팀이었다. 이후에는 판형을 작게 한 분책으로 출판하면서 책 가격이 인하되고 서서히 책의 대중화가 이루어진다.

5) Yves Olivier-Martin, *Histoire du roman populaire en France*, Albin Michel, 1980 참조.

6) 피고르브뤽은 이른바 '문지기소설 roman des portières'의 창시자이다. 외설스럽고 해학적인 그의 작품 속에서 주인공은 언제나 서민으로서 사회적 신분 상승의 실현과 평등에 대한 욕망을 익살스러운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다.

로 향상되기 시작하고 대중의 계몽을 목적으로 한 신문들이 간행되면서 문자가 널리 보급됨과 동시에 신문소설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문화적 소외계층이 교육의 보급 및 인쇄술의 발달, 정치적 진보에 힘입어 소설의 주된 독자층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 새로운 독자 대중은 주로 소부르주아와 수공업자들이었으며, 일부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1830년대에 이르러 대중문학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다.

신문연재소설이 최초로 선을 보인 것은 1836년이다. 일간지 《르시에클 Le Siècle》지와 《라프레스 La Presse》지를 통해서였다. 이 두 신문은 판매가격을 절반으로 대폭 인하하고 신문의 편집 체제를 새롭게 혁신하면서 대중 속에 더욱 깊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독자를 끌어들이고 정기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처음부터 정책적으로 소설을 연재한 것은 아니었다. 《르시에클》지의 경우 소설은 지면의 말미에 자리한 잡록 Variétés면에 실렸다.⁷⁾ 편집이 좀더 산뜻하고 문학의 비중이 높았던 《라프레스》지가 출간한 최초의 소설은 발자크(Honoré de Balzac)의 『노처녀 *La Vieille Fille*』로서 연재소설란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란에 상재한 것이었다. 따라서 신문사가 연재소설의 상업성을 인식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 소설이 신문의 판매부수를 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여 신문소설의 산업화가 시작된 것은 1841년에 이르러서이다. 이때부터 신문소설은 프랑스 사회의 모든 계층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폴 드 코크 Paul de Kock의 신문소설이 먼저 인기를 얻었고, 이어 외젠 쉬 Eugène Sue와 알렉상드르 뒤마 Alexandre Dumas, 프레데릭 술리에 Frédéric Soulié 등이 전 국민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대중소설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그들은 프랑스 국민에게 매일 아침 이야기를 들려주는 세헤라자데였다.

폴 드 코크(Paul de Kock, 1793-1871)는 신문을 통해 대중에게 커다란 사랑을 받은 최초의 작가이다. 그는 당대 사회를 현실감 있게 그리면서 독자들의 대리만족 욕구를 가장 섬세하게 채워줄 줄 아는 작가였다. 그의 신문소설

7) 《르시에클》지의 편집체제는 국문학, 연극, 외국문학, 윤리학, 물리학, 미술, 외국잡지, 산업, 여행, 잡록, 기타의 순이었다.

은 가장 비천한 계층에서부터 부르주아 계층까지 폭넓은 애독자를 끌어들이었다. 《라프레스》지와 《르시에클》지의 창립자인 지라르댕 Girardin과 뒤타크 Dutacq는 도서대여점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그를 신문으로 끌어들이으로써 판매부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효과를 보았다. 폴 드 코크의 애독자는 주로 남성 대중이었다. 그의 연애소설은 성격이나 계층적 갈등을 개인적이거나 도덕적인 갈등으로 끌고 가는 경향을 보인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고 싶어하던 서민들과 소부르주아들의 관심사가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19세기 프랑스 대중소설의 화려한 개화는 외젠 쉬(Eugène Sue, 1804-1857)의 출현에 힘입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도 대중소설의 황제로 불린다. 1842년 6월 19일, 쉬는 《주르날 데 데바 Journal des Débats》지에 『파리의 신비 *Les Mystères de Paris*』 연재를 시작한다. 이후 16개월 동안 프랑스 전국은 물론 전 유럽, 심지어는 미국까지 그의 소설에 열광한다. 신문이 발행되는 아침시간에 신문사 앞은 신문을 사가려는 사람들로 끝없는 장사진을 이루었고, 30분에 10상탑을 받고 신문을 대여해 주는 가게까지 생겨났다. 사람들은 이 소설에 따라 울고 웃었다. 문맹자들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수위에게 그의 소설을 읽어달라고 졸랐고, 신문에 소설이 실리지 않는 날이면 프랑스 수상도 격노했다고 한다. 출판 편집자들은 쉬를 끌어들이기 위해 백지 계약서를 서슴없이 건넸고, 저명한 문인들 역시 그와 사귀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다. 정치인들은 이 소설에서 사회개혁의 모델을 보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죄수들을 위한 농장, 자선은행의 조직, 전과자들을 위한 자선 후원회, 감옥의 독방 분리, 사형제도의 폐지 등) 소설 연재가 끝나기도 전에 영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독일어, 네덜란드어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뉴욕에서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8만 부가 몇 달만에 팔려나갔다. 이 소설의 공식을 모방하여 『베를린의 신비』, 『뮌헨의 신비』, 『브뤼셀의 신비』가 도처에서 출현하였다. 빅토르 위고는 이 소설을 읽고 『레미제라블』을 구상했고, 알렉상드르 뒤마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착안했다. 대중소설의 전범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이었다. 쉬는 예술작품을 쓴 것은 아니었지만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알았다. 현실과 환상을 절묘하게 뒤섞어 긴장과 감동을 빚어냄으로써 독자들은 이 소설을 읽으며 눈을 뜬 채 꿈을 꾸었고, 무한한 위안

을 얻었다. 『파리의 신비』는 사회적 중요성을 지닌 작품이며, 하층 계급의 실태를 세상에 널리 알렸고, 불행을 안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의식을 부여해 줄 수 있었다. 그러므로 『파리의 신비』는 서민과 하층민을 위한 사회주의 소설이다. 이 소설 속에서는 전과자, 창녀, 도둑, 강도들이 우글거리며, 사회악을 응징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을 초월한다. 주인공 로돌프 드 제롤슈타인은 니체 류의 슈퍼맨(超人)이다. 장발장과 몬테크리스토의 선배인 셈이다. 그는 뛰어난 무예를 갖추고 악을 응징하는 정의의 사도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천사 같은 사람이다. 그는 사회악을 제거하고 복수하는 데 있어서 가차없는 해결과 잔인함을 주저하지 않는다. 고질적인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법을 만든다. 학교 선생의 눈을 멀게 하고 호색한 자크 페랑을 죽게 한다. 그는 암울한 파리의 현실적 비참함을 환상적으로 해결한다. 건달 슈리너르(칼침)를 전향시키고, 슈에트와 학교 선생을 응징하며, 플뢰르 드 마리를 구원하고, 모델 가족을 절망에서 구해주고, 자크 페랑의 사악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힘없는 자들에게서 빼앗은 것들을 되돌려 주고, 우여곡절 끝에 딸을 찾는다. 그는 신과 동격의 인물이다. 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를 하느님이라 되뇌는다. 그는 노동자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간 신이다. 로돌프는 동화적인 요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작품의 후반에 드러나는 로돌프의 신분은 독일의 부유한 작은 왕이며, 신 중함과 선의의 규범에 따라 자신의 왕국을 조직한 사람이다. 선량한 마음씨를 지닌 낭만적 영웅이다. 대중 독자는 로돌프의 복수를 대하며 대리만족을 느끼고 감동한다.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 각각에게서 자신의 숨은 원형을 발견하게 된다. 황산에 그을린 학교 선생, 스킨레트의 냉소, 자크 페랑의 역겹고 저속한 위선, 마르시알 가족의 천인공노할 악행, 플뢰르 드 마리의 순수함, 로돌프와 다르빌 후작부인의 고귀함, 아버지 생레미의 우울함, 머프의 충실함, 악에 몰입한 폴리도리의 학문, 세실리의 관능성 등이 그것이다. 그러한 원형들은 대중 독자들이 가진 감수성의 가장 악하고 신비로운 영역에 속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우리들 모두의 것이다. 쉬는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였고, 그 인물들은 피와 생명을 가지고 살아 숨쉬며 독자들의 감성을 조종하였다. 그의 작품 속에는 대중소설의 모든 신

화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는 당대 작가들에게도 영감의 제공자이자 안내자 역할을 했는데, 발자크는 그의 작품에서 주제와 서사구조, 문체의 성격, 그리고 해결책들을 찾으려 노력했다.

1850년 7월에는 연재소설을 신는 신문 한 부마다 5상팀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리양세 Riancey 법이 공포되었다. 그것은 1850년의 선거를 통해 의회에 들어간 쉬와 대중소설가들에 대한 말살정책이었다. 그해 12월 2일에 나폴레옹 3세가 쿠데타를 일으켜 다시 제정을 수립하자 쉬는 사부아 왕국의 안시 Annecy로 망명했고, 1856년 그곳에서 『민중의 신비』를 완성한 뒤 공화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의 애도 속에 이듬해 생을 마쳤다. 그의 죽음과 함께 고전적 의미의 신문연재소설도 생기를 잃었다.

쉬보다는 명성이 덜한 프레데릭 솔리에(Frédéric Soulié, 1800-1847)는 쉬를 경쟁 상대로 삼아 더 많은 대중을 정복하고자 했다.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대표적 작품으로는 광란적 환상이 풍부한 걸작이며 기괴하고 풍자적인 『악마의 회상 *Mémoires du diable*』이 있다. 그는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드라마와 멜로물로 유명해졌다. 그리고 1836년에 『악마의 회상』을 구상하고 1837년부터 1838년까지 신문에 연재함으로써 유명 작가가 된다. 이 작품은 추악하고 흉물스런 사회 풍경을 그리고 있다. 범죄, 근친상간, 간통, 음모, 간계가 선함과 순수의 가면을 쓴 등장인물들에 의해 자행된다.⁸⁾ 그는 이후 1840년대 낭만주의 시대의 신문소설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쉬와 마찬가지로 그도 이 장르를 향해 권력과 교회가 앞장서서 행한 격렬한 공격에 과감하게 맞서 싸웠다.

1855년경에 대중소설은 더욱 더 '부르주아적'으로 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그것은 특히 풍송 뒤 테라이(Ponson du Terrail, 1824-1871)와 함께 권력을 도구화하는 데 일조한다. 테라이는 모든 사회적인 비판을 피하면서도 대중들을 사로잡는 타고난 재능을 지닌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는다. 그러나 장황하고 졸렬한 작가로 평가받은 그는 『로캉볼 *Rocamboles*』 시리즈를 제외하고는 거의 읽히지 않는 작가로 남아있다.

8) Maurice Champion, Frédéric Soulié, *sa vie et ses ouvrages*, Moquet, 1847 참조.

비르지니 앙슬로 Virginie Ancelot와 클레망스 로베르 Clémence Robert는 1855년에서 1870년까지의 이 새로운 시기가 지속되는 동안 가장 유명한 경쟁자들이었다.

서점(당시의 서점은 출판사를 겸한 경우가 많았다)은 이 작가들의 작품을 싼값으로 유통시킨다. <드고르스카도 Degorce-Cadot> 총서는 인기리에 연재되었던 신문소설의 소멸에 힘입어 값싼 대중소설을 유포시킨다. 폴 페발 Paul Féval은 제2제정 시대에 가장 유명한 작가 중의 한 사람이었다. 사회에 대한 비평 때문에 가끔 시련을 겪기도 하지만 풍송 뒤 테라이의 문체보다 더 인기 있는 문체를 지닌 그는 보수주의를 견지하며 테라이에 의해 시작된 이 장르의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 루이 필립 시절에 쉬의 대중소설이 주인공들의 전능함을 서정적으로 양양시켰던 반면, 도피적인 소설은 기존 질서의 충족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망스 로베르는 여전히 쉬의 사회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주제를 전개했다.

4. 제2시기: 부르주아의 시대 - 성숙기(1870-1900)

대중문학의 제2시기는 19세기 후반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몽테팽 Montépin, 리슈팽 Richepin, 리슈부르 Richebourg같은 작가들이 이 시기의 대표적 작가들이다. 이전 시기의 소설들이 대중적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이고 어느 정도 민주적이었던 반면, 이 시기의 소설은 반동적이고 소부르주아적이며 때로는 인종주의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인 경우가 많았다. 주요 등장인물은 억압받는 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복수의 영웅이 아니라 평범하고 순진한 사람이며, 오랜 역경을 거뒀던 끝에 적들을 이긴다.

1880년부터 에밀 리슈부르 Emile Richebourg를 계승한 쥘 마리 Jules Mary와 자비에 드 몽테팽 Xavier de Montépin은 이 장르에 새로운 색채를 불어넣는다. 특히 몽테팽의 경우에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보다는 범죄 이야기나 간통, 유산 사취의 이야기를 선호한다. 반면에 마리는 재판상의 오류에 관한 주제를 작품의 중심에 놓는다. 그것은 '희생자 소설의 승리'이다. 모든 것은 타락적인 요소이자 동시에 구원의 계기인 금전의 주위를 맴돈다. 서민의 딸들은 후작 부인이 되고, 희생자의 사회적 신분상승은 압제자의 추락이라는

필연적인 귀결을 부른다.

조르주 오네 Georges Ohnet는 금전 세계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당대 현실로부터 폭넓게 영감을 받지만 실제로 그의 작품 속에는 어떠한 사회적 비판도 담겨있지 않다. 그는 옥타브 피이에 Octave Feuillet의 주제와 서술적 기교에 아주 가까운 이상주의적 경향을 묘사했다. 이 이상주의적 경향은 델리 Delly 남매에 이르러 완성됨으로써 절정에 이른다.

서점 분야에서 1870년에서 1880년에 이르는 기간은 명백히 신문소설과 경쟁하는 분책 출판의 놀라운 비약이 주목되는 시기이다. 루프 출판사 등 신규 출판사들은 오로지 대중소설의 출판에만 전념한다. 제2제정 말기에 생겨난 아르템 파이야르 Arthème Fayard 출판사는 루프와 경쟁하며, 이어 페렌치 Ferenczi와 탈랑디에 Tallandier 출판사와도 경쟁한다.

대중소설은 전보다 더욱 폭넓게 여성 작가들에게 개방된다. 쉬의 아주 충실한 추종자로서, 공화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이며 1880년부터 1890년 사이에 가장 많이 읽힌 작가 중의 한 사람인 피에르 니누 Pierre Ninous의 경우가 그러하다. 여주인공은 자신의 운명을 그녀 스스로 책임질 것을 주장한다. 이 장르의 발전은 그 주장에다가 루이즈 가니외르 Louise Gagneur에 의해 유명해진 여성운동주의적 주제의 접맥을 가능케 한다. 니누의 작품에서 주목되는 주제들은 폴 드 코크나 데느리 Dennerie에 의해 발전된 주제들과 함께 어떤 공통의 특징들을 제시한다. 즉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려는 고아, 그리고 그러한 신분의 추적은 흔히 부차적 성격을 지닌 탐정적 줄거리를 곁들인다는 것 등이다.

1900년부터 대중 출판물의 발전은 광범위한 대중들이 대중소설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즉 4대 일간지인 《르프티주르날 Le Petit Journal》, 《르프티파리지앵 Le Petit Parisien》, 《르마탱 Le Matin》, 《르주르날 Le Journal》 등의 신문소설들은 특히 여성 대중들이 주된 독자가 된다.

피에르 드쿠르셀 Pierre Decourcelle은 20세기 초에 가장 대표적인 작가였다. 그의 소설들은 파이야르의 대중 총서로 간행되었다. 65상권 내지 40상권 짜리 책은 1875년에서 1900년 사이에는 이전에 분책으로 출판되었던 소설들의 뒤를 이었다.

1900년과 1914년 사이에는 이 장르에서 어떤 숨가쁨을 목격한다. 드쿠르셀은 이 시기에 가장 유명해진다. 급히 씌어진 그의 소설 구조는 주요 줄거리와 평행한 몇 개의 다른 줄거리들과 대립하게 만드는 에피소드적 소설의 구조, 대하소설의 구조이다. 동일성의 추구는 희생자와 구원자의 주변에 더욱 뚜렷이 드러나는데, 구원자는 질 마리의 작품에서처럼 유혹자의 파멸을 초래시키고 부유해진 의인이 아니다. 지콜레트 Gigolette는 19세기 초의 심리?애정소설의 전통 속에서 순결의 승리와 박해받은 정조의 승리에 헌신한다.

다니엘 르죄르 Daniel Lesueur는 여성 대중을 사로잡기 위해 드쿠르셀과 경쟁한다. 사회적 금기와 여성적 불평등에 대항하는, 남성적이며 용감한 여주인공들의 개념을 통하여 그녀는 단호하게 '희생자 소설'의 전통과 관계를 끊음으로써 그녀의 여주인공들에게 현대적 특징을 갖게 한 것이 장점이다. 한편 장 드 라 이르 Jean de la Hire가 기교가 많이 섞인 사교계 소설로 그의 이름을 떨치기 시작한 것은 1900년 무렵부터이다. 그는 『번개바퀴 *La Roue fulgurante*』로 인기작가가 된다.

1914년의 전쟁은 남성적 여주인공의 주제를 많이 유발한다. 또한 구원자가 국제 금융업자나 신흥 부호로 대표되는 악과 대항하여 싸우는 주제의 발전을 유발한다. 주인공의 대적자 계급들(신흥부호 대 신흥빈민)의 융합은 희생자와 유혹자 사이의 성관계의 형태로 행해진다. 아르튀르 베르네드 Arthur Bernède는 이 과도기의 가장 대표적인 소설가이다.

5. 제3시기: 신영웅 시기 - 전환기(1900년 이후)

20세기 초에 시작되며 반사회적 영웅들, 특이한 존재들을 등장시키는데, 그들은 억압받은 자들을 위해 복수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인 능력의 계획을 따른다.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의 〈아르센 뤼팽 Arsène Lupin〉, 에밀 수베스트르 Emile Souvestre의 〈팡토마 Fantomas〉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팡토마〉 시리즈의 특징은 범죄가 승리하며, 가학적이고 잔인한 살인자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대중의 공감을 얻고, 경찰은 무기력하고 냉소적인 존재로 전락해 있다는 점이다. 팡토마는 명백한 사회적 조건들을 초월하여 비합

리성의 난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규범적 추리소설의 범주를 이탈함으로써 1차 세계대전 후에 등장하는 행위적 추리소설과 <스파게티(마카로니) 웨스턴>의 원조격이 되고 있다. 말하자면 악당을 편둑으로써 완전히 평온하지 못한, 그래서 더욱 자극적인 만족감을 안겨 주었다.

그런 점에서 <아르센 뤼팽>은 <팡토마>에 대한 부르주아적 대응물로 보인다. 뤼팽은 법을 벗어나지만 잔인하지 않고, 도둑이지만 우아하며, 양심의 가책은 없지만 인간적 감정이 풍부하고, 경찰을 조롱하지만 무례하지 않고, 부자들의 재산을 강탈하지만 피를 뿌리지 않으며, 건달이나 매춘부들의 세계와는 소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작가 르블랑은 뤼팽에게 전통의 존중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동과 초인적 에너지를 불어넣음으로써 생명의 비약을 상징하는 프랑스적 영웅으로 만들었다. 뤼팽은 범죄를 모의하고 경찰을 조롱하고 돈을 훔치며 새로운 모험들을 감행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의에 대한 갈망이나 이익의 욕망 때문이 아니라 권력의 욕망 때문이며 일종의 나르시스트적 도취와 함께 자신이 지닌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기 위해서이다. 모리스 르블랑은 부르주아 대중의 취향을 간파하고 그 입맛을 만족시킬 줄 아는 민감한 작가였다.

라 본 프레스 La Bonne Presse 출판사와 플라마리옹 Flammarion 출판사에서 보급판 전집을 출판한 델리 남매는 여성주의의 확장이 현저해진 시기에 가장 특징적인 작가들이다. 19세기는 1920년에 소멸한다. 델리의 작품들은 이상주의적 경향의 영속성을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그들의 소설은 당대 현실과 거의 연관성이 없는 몽환극으로서, 현실의 냉혹함을 망각하게 하는 낯설음으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종류의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여 대중의 사랑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1940년 초에는 기 데 카르 Guy des Cars가 출현했다. 그 역시 피에르 브누아 Pierre Benoit가 그랬던 것처럼 비평가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의 소설은 델리와는 반대로 풍속의 발전을 광범하게 반영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자양을 공급받는다. 그는 외설스러운 주제를 다루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매우 짧은 시간에 모든 대중들의 작가가 되었다.

Ⅲ. 나가며

대중소설은 독자들이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상향의 인물들을 꺼내 보여줌으로써 유년기의 따뜻한 화롯가로 되돌아오게 한다. 작품에 매료된 여성 독자들은 자신들이 꿈꾸던 남성, 곧 마음 속에 그려온 부유하고 잘생긴 남자나 가난하지만 정직한 남자의 모습들을 만난다. 여성 독자들은 비열하지만 부자인 유혹자, 용감하지만 가난한 구원자 가운데서 선택을 하게 되며, 자신들이 구원자를 만나기라도 하듯 유혹자의 텃에 걸려들어 희생자가 되거나 대항자가 되기도 한다.

신문소설이나 여성들을 위한 소설들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욕망의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인간 본성의 광고한 면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적이거나 사회학적 현상이 된 대중소설에서 인간적 욕망이 변형된 것이다. 작가의 메시지는 매우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고 있는 독자들의 거대한 집단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중문학의 역사는 19세기의 놀랍고도 새로운 문화인 신문소설의 역사와 뒤섞이기도 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대중소설은 오로지 판매만을 염두에 두고 대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 프랑스의 대중소설은 사회적, 정치적 충격을 끊임없이 겪어야 했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적 투쟁에 연루된 작가들의 손으로 씌어졌기 때문이다. 쉬는 처음에는 개량적 사회주의자였지만 나중에는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되었고, 뒤마는 출판의 자유를 위협하는 리양세 법에 대항하여 투쟁했으며, 위고는 온건하고 신비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적 열광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소설은 판매 가능성의 이유로 낙관적 카타르시스의 효과를 유발해야 하는 운명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대중적 서사구조는 혁명적일 수 없다. 대중이 스스로를 확인하고 기분 좋은 위안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사적 혁명이란 세상에 대한 다른 정의를 예상하거나,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일어난다. 그 점에서 쉬와 발자크가 구분된다.

요컨대 프랑스의 대중소설에서 연구해야 할 모델을 선택한다면, 그리하여 오늘날 대중문화 현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이 19세기의 문학 시장에

서 어떤 선례를 발견할 수 있다면, 쉬의 작품 『파리의 신비』가 가장 이상적인 연구 대상이 될 것 같다. 대중적 위안의 이데올로기, 문화 산업, 그리고 소비 소설의 서사기법이 어떻게 연결되고 상호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파리의 신비』가 훌륭한 텍스트를 제공하리라 여기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Abraham, Pierre, «Une infra-littérature?», dans *Europe*, No. 542, juin 1974.
- Champion, Maurice, *Frédéric Soulié, sa vie et ses ouvrages*, Moquet, 1847.
- Guise, René, «Balzac et le roman-feuilleton», dans *Balzac*, Presses Universitaires de Nancy, 1994.
- Guise, René & Neuschäfer, Hans-Jörg, *Richesses du Roman Populaire*, Centre de recherche sur le roman populaire, 1983.
- Olivier-Martin, Yves, *Histoire du roman populaire en France*, Albin Michel, 1980.
- Sue Eugène, *Les Mystères de Paris*, Robert Lafont, 1989.
- 임성래 외, 『대중문학의 이해』, 청예원, 1999.
- 대중문학연구회,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 평민사, 1995.

【Abstract】

A History of the Popular Literature in France

Song, Duk-Ho

The popular literature is a phenomenon of literature?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opular literature and the general literature? The term of 'popular literature' is contemptuous. It has been excluded for a long time from the literary history and the critics. Even to our era, it was considered as the bad thing, the sub-literature, in opposition to the 'good' literature, so called 'canon' or 'classic.'

The history of the popular literature is jumbled together with the history of the popular novel. The popular novel is a type of fiction who tells from the people to the people, but this literature is not be produced by the people. Most of it were realized by the bourgeois and the nobles. The popular literature represent a kind of awaked and collective dream, a dream which is the most hidden impulse and the social identity of the lecturer. The popular novel forges a new idea of the people and becomes popular, for the lecturers discover their identity, recreate the people in it.

The popular novel is arose from the melodrama just like the black or gothic novel which was illustrated by Ann Radcliff, Lewis, Maturin, Ducray-Duminil, translated with a tendency moralistic and edificatory by the works of Mme Cottin. But with Eugene Sue the popular novel is opened to the most wide people. It was the arrival of the serial novel, which is published serially in the daily newspaper. It becomes a surprising phenomenon of collective lecture, of apprehension by the writers — Sue and Soulie — of all the currents of the

popular sensibility. Sue, Soulie, Kock are the most representative writers of the genre, for the period of 1840-1860. After this period, the bourgeois novel was born. And in the 1880, the popular novel becomes love story. The bourgeois novel defense the profit of the bourgeoisie and their conservative evolution with Ponson du Terrail et Paul Feval. But in the 1920 begins a new era. It is illustrated by a series of feminine writers, and by Guy des Cars, by Maurice Leblanc.

Key Words: French Literature, popular literature, popular novel, history of literature, popular culture.